

‘개원 20주년’ 화순전남대병원 세계적 암 특화병원 성장

환자 중심 협진체계 도입·호남 유일 ‘다빈치 SP·Xi’ 구축 올해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준공...신기술 임상시험 강화 민정준 병원장 “성공 역사 원동력...브랜드 가치 높일 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오는 26일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2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87병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암 치료를 특화했고, 환자 중심의 협진 체계를 도입했다. 또 서울 대형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첨단 고가 장비를 갖췄다. 현재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다빈치 SP·Xi 시스템’을 구축해 고난도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수준 높은 의료진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은 것도 세계 최고 암 병원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고 병원 측은 보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개원 이듬해인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7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일일잡지 두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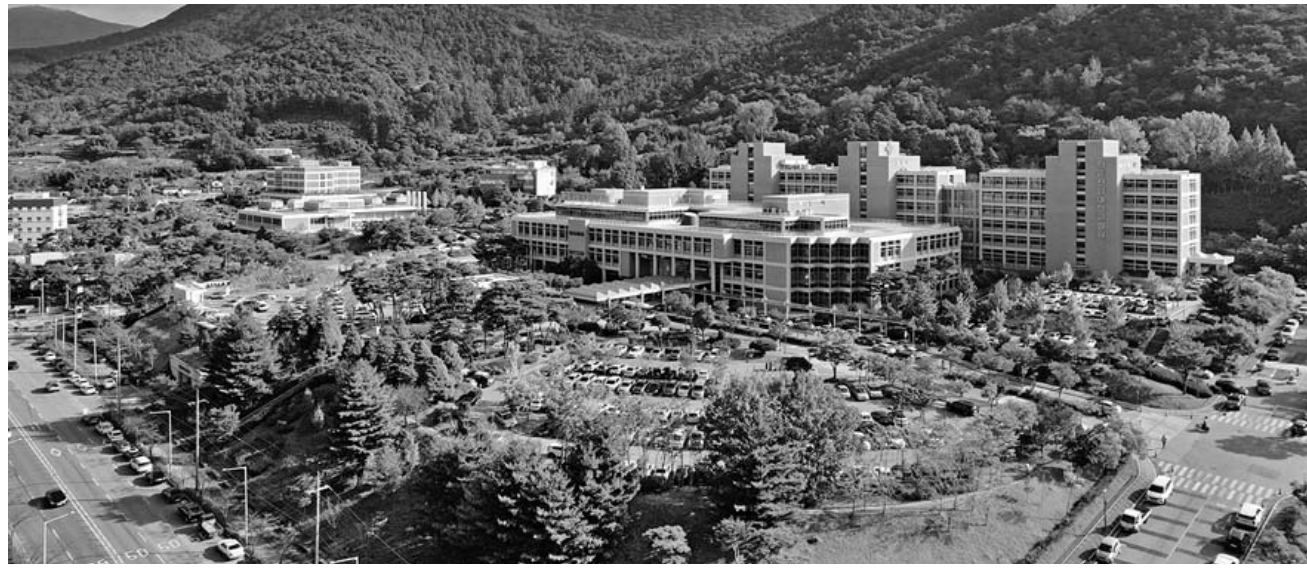
2006년 5월에는 전남지역 암센터 기공식을 가졌고, 같은 해 9월에는 호남

최초로 병원 내 소아암 환자들 교육을 위한 ‘여미사랑 병원학교’도 문을 열었다. 2007년 12월엔 국가 지정 전남지역 암센터를 개원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암 조기 발견 사업, 암 예방 교육 등 암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루며 암 치료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 ‘암 치료는 서울’이라는 편견을 깨는 등 지역 한계를 극복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자연 친화적 병원을 목표로 2008년 4월 병원 대지면적의 약 4분의1인 4만9천㎡ 규모의 치유 숲 개장식을 가지는 등 ‘자연 속의 첨단 의료, 환자 중심, 세계 중심’의 핵심 가치를 실현했다. 이에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공기관 조사 결과에서 국립대 병원 중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국립대병원 최초로 JCI(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았다. JCI 인증을 통해 환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오는 26일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병원은 지난 2004년 진료 시작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암 치료를 특화했고, 환자 중심의 협진 체계를 도입했으며 최첨단 고가 장비를 갖춰 세계적 암 특화병원으로 성장했다. 사진은 화순전남대병원 전경.

안전과 진단, 치료 지침 등에서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개원 10년 만에 ▲병상 수 대비 암 수술 건수 전국 1위 ▲2013년 해외환자 유치 증가율 전국 1위 ▲서울 빅5 병원도 받기 힘든 JCI 재인증 ▲수도권 대형병원들 벤치마킹 등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했으며 현재 연간 외래환자 54만4천436명이 방문하고 19만7천566명이 입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4년 종양학(Oncology)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4)’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는 국내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함께 두 곳이 나란히 이룬 성과다. 매년 순위가 상승해 현재 1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은 국내 45곳의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병원-대한민국(World’s Best Hospitals 2024-South Korea)’ 순위에서 2023년보다 23계단이나 상승한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년간 축적한 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연구 중심병원’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올해 준공되는 개방형 의료혁신센터(가칭)에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암 면역치료, 분자 영상, 의료 인공지능, 정밀 의료 분야의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백신, 면역치료제 개발부터 다양한 바이오 인력 양성까지 원스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순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트의 핵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우수 인재 유치와 의사 과학자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감한 투자를 통한 환자 중심의 진료, 의료 편리성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기 및 진료 시간 단축, 공간 확충, 다학제 진료 활성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구축 등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연구·진료에서 세계적 역량을 보유한 화순전남대병원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는 물론, 세계에서도 성공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같은 성공의 역사를 원동력으로 삼아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전남대병원, 장애인재활업체 생산품 구매 ‘상생’

곡성 농산물 포장 업체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 의뢰 타 국립대병원 계약 잇따르며 연매출 ↑...고용·임금도 늘어

“정신병원장님, 저는 병원 박스 만들고 친구들과 재미나게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 병원상자 배달이 많아져서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고 돈도 만나져서(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만나지(많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성의 한 중증장애인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정신전남대학교병원장에 감사편지를 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편지를 보낸 이는 동약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호(31)씨다. 송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지난 2018년부터 7년째 동약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 업체는 곡성군의 위탁을 받아 운

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경·중증 장애인 22명이 농산물 포장 상자만 만들었지만, 공공매 증진을 고민한 병원의 제안으로 의료폐기물 전용 상자 제작 의뢰를 받았다.

업체는 전남대병원과 계약 이후 생산 실적이 크게 올랐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납품 거래를 계기로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과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납품 거래가 이뤄지며 연매출이 급증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면서 업체가 고용한 장애인은 1년 남짓 새 13명이 늘어 현재는 35명이 근무 중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이지

만 여력이 생기면서 일부 장애인도 최저 기준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씨 역시 임금이 올랐으며 또래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즐겁고 감사한 마음에 정신 병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허준 동약포장재사업소 시설장은 “전남대병원의 좋은 제안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고마울 따름”이라며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지역 대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전남대병원장은 “지역 거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제안하고 적극 구매해 이들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기수희기자

조선대병원 “올해 3-4월 방사선 치료 암환자 2배 ↑”

전년 동기 대비...최고사양 치료기 헬시온·트루빔 도입 등 영향

올해 3-4월 조선대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방사선 치료 암 환자 수는 2천5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19명에 비해 38% 증가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시기인 3-4월 진료 환자 수는

1천812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789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사태로 수도권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암 환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5월 방사선암 치료기 ‘헬시온 31’이 이어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최초로 암치료기 ‘트루빔’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환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자체 파악한 결과, 신규 방문 상담수가 수도권 병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절한 진료를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호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은 의료진들의 암과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상위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경품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

보험(모바일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접이식 손수레(카드)를 지급한다.

경품행사 응모는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공단 지사 방문 시 자동이체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완납 시 보험별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수희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락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